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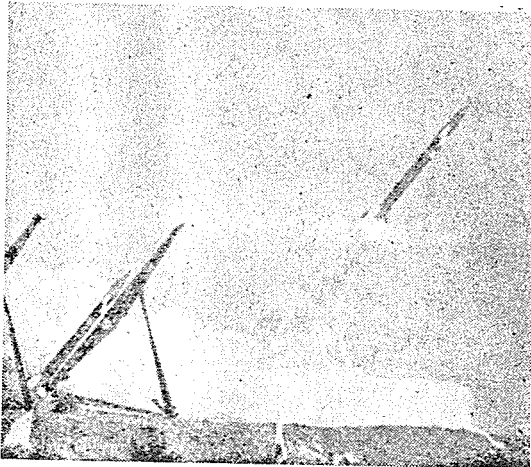
韓國型 미사일 試驗發射 成功

박정희 대통령은 77년 4월 우리는 數年內에 戰鬪機를 除外한 모든 武器를 國內生産 한다는 計劃을 밝힌바 있다. 이어서 6월에는 「80年代末까지 航空機와 高度電子武器를 除外하고 完全히 自給을 實現하는 것이 課題」라고 천명하 바 있다.

끊임없이 努力해온 우리나라 防衛産業은 지난 9월 26일 綜合試驗 基地에서 韓國型 미사일 의 數種의 武器를 試驗發射하는데 성공함으로 自主國防의 고무적인 새로운 면을 보여 주었다.

우리 국방과학기술진에 의해 설계되고 제조되었으며 시험을 마침으로써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7번째로 自體開發 誘導彈保有國이 된 것이다.

이로서 우리의 科學 技術이 10'까지 왔다 하겠으며 이 모든 발전이 국민의 정성어린 방위성금과 방위세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재삼 음미하게 된다.



地震認知 어려우나 對備해야

洪城地震이 주는 敎訓

地震이란 地殼의 內部에 自然的으로 일어나는

急激한 變動 및 이것으로 생기는 地殼의 彈性波動에 依하여 地殼이 動搖하는 現象이라고 辭典에 쓰여있다.

지극히 常識的인 理解뿐인 이들에게는 地球上에 가끔 있는 일 정도로 無關心할 수 있다.

가까운 日本에서는 자주 있는 일로 이 문제가 社會的으로 심각히 다루어지고 있어도 韓國은 安全地帶란 느낌으로 강건너 불로만 보아왔는지 모른다. 10월 6일의 洪城地震은 42年만에 震度 5를 記錄한 强震이었다. 震度 5라면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쓰러질 정도의 狀態이다.

이번 지진의 피해액이 대략 3억 9천여만원이라는 집계고 보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큰 災害임을 실감케 된다. 天災를 어찌 막을 수 있으라는 생각에 앞서 이번 地震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가뭄과 수해를 겪는 동안 예지를 다해 이를 克服해 왔다. 따라서 점차로 災難에 對備해가고 있다. 地震을 豫知하려는 努力은 地震의 被害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豫知의 수단으로 海底構造 調査船에서 音波를 利用한 구조 조사나 地震관측 Well을 파서 地下水를 分析溫度와 成分을 調査도 한다. 또한 지진계를 써서 해저나 지면의 微少한 震動을 포착하거나 기울기의 측정도 참고가 된다. 지진의 지역적 역사적 통계, 주기현상도 참고가 된다.

그러나 적어도 지진을 예지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있다는 3가지 요소가 확실해야 효력이 있겠는데 아직은 절대 확실한 지진예보는 없다 豫知를 하였다 해도……

每日 發表되는 日氣豫報가 반드시 적중할 수 없듯이 헛탕일 수도 있다. 다만 돌연한 지진을 맞게 되는 것보다 對備된 단계에서 맞는 地震은 피해를 감소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無震地帶가 아니라고 갑작스레 떠들 필요도 없다. 洪城의 地震에 敎訓이 있다면 有備無患일 것이다. 耐震의 建築設計도 重要하거니와 층계에 위험한 物品의 保存, 정밀기계의 파손, 국민이 취해야 할 基本的 대비책 등 어떠한 災難에도 당황치 말고 감당하도록 啓蒙이 必要하지 않을까?